‘들녘 화장실’에 영암 여성농업인들 활짝 웃었다

군, 신북·미암·군서에 화장실 설치…263개 농가 혜택

우승희 군수 “군민 생활 변화 체감할 군정 확대 운영”

차마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어오던 여성농업인들이 영암군의 들녘 화장실에 반색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따르면 농업이 자부담 포함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북·미암·군서면 3곳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 화장실들은 여성농업인 79명을 포함해 263개 농가에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여성농업인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군은 지난 5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가의 의견을 들었다.

8월에는 ‘설치 장소 150m 이내에 공동·개방 화장실이 없을 것’, ‘관리책임자 선임·청결유지 의무’ 등의 사업 지원 요건도 마련해 공모에 나섰고, 최종 3곳의 신청을 받아 10월 화장실 설치를 마쳤다.

들녘 화장실 관리책임자들은 농번기 주 1회 이상 소독·정화, 분뇨수거, 관리카드 작성·비치 등을 약속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14일 우승희 영암군수는 미암면 신포리 들녘 화장실 설치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등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지역 여성농업인은 “들녘에서 농사일하다가 볼일이 급하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를 타고 5분 남짓 걸리는 집에까지 가야 했다”며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이 농업 현장에 생겨서 굉장히 좋다. 깨끗한 좌변기에 편히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어서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영암군은 민선 9기 들어 혁신 군정을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도록 다양한 정책에 디테일을 더하고 있다. 들녘 화장실은 그 대표 사업으로 남성 중심, 영농 편의 위주의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추진됐다. 특히 여성의 작업 참여도와 비중이 늘어가는 농업 현실에 맞게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농업인의 인권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 들녘 화장실 설치에 땅을 내놓고, 자부담까지 내놓아 준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들녘 화장실 설치를 이어 나가서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군정을 위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은 최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북·미암·군서면 3곳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우승희 군수는 들녘 화장실이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진도, 아트문화센터 신축공사로 세방낙조 전망대 공간 일시 폐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세방낙조 전망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의 아트문화센터 신축공사 기간에 기존 전망 공간을 일시 폐쇄하고, 이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아트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지산면 가학리 세방낙조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345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8년 5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은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따라 기존 전망 공간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만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대체 전망 공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전망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관광객들을 위해 세방낙조에서 약 4.5㎞ 떨어진 급치산 전망대를 대체 전망 공간으로 안내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자연경관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도군 누리집과 관광 안내 매체 등을 통해 전망 공간의 일시 폐쇄와 대체 전망대 이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사 현장 주변에는 안내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김신 완도군수는 최근 외딴섬인 금일읍 신도를 찾아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생활불편 등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김신 완도군수, ‘외딴섬 주민’ 찾아 소통 행보

신도 등 4개 섬 순회 주민과 대화·생활 밀착형 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최근 금일읍 신도를 찾아 ‘2026 외딴섬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외딴섬 주민과의 대화’는 지리적 여건으로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딴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현안에 대해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신 완도군수는 행사의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도로 확충과 여객선 운항 개선, 부잔교·인양기 등 어업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과 밀접한 5건이 제시됐다.

군은 접수된 건의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처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일읍 신도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청산면 대모도(모서), 11월 4일에는 노화읍 어룡도, 11월 18일에는 소안면 횡간도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신 군수는 “외딴섬 주민들은 교통, 의료, 생활 등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와 함께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신도를 찾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이미용, 돋보기 지원, 도배, 방충망·등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무안, 창작 뮤지컬 ‘라스트 쇼’ 선보인다

국비 지원 콘텐츠 개발…23~24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오는 23~24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코미디 뮤지컬 ‘라스트 쇼’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추진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의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분야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특히 기존 작품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창작팀이 기획·제작에 참여해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개발했다.

공연 제작사 정컴퍼니와 협력해 무안군이 직접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군은 이번 초연 이후 작품을 보완하고 전국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스트 쇼’는 공연을 하루 앞두고 서커스단의 유일한 곡예사이자 스승이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공연을 취소할 수 없게 된 단장과 조명·음향·무대·의상·소품담당스태프들은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등 공연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코미디로 풀어내고, 실패를 딛고 함께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박형준은 허세 속에서도 무대를 향한 열정을 지닌 단장 ‘강대장’ 역을, 최혁주는 고소공포증을 극복해 가는 ‘한빛나’ 역을 맡는다.

김석구, 윤진웅, 윤서원, 이선미 등도 출연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작품은 무대 위 주인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연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군민들이 지역 공연장에서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